R&R 28(2021) 71-104 https://doi.org/10.36365/kukirs.2021..28.71

기독교에 대한 초기 헬라-로마 지식층의 태도: 켈수스의 예수 비판을 중심으로

신민석
(시드니신학대학, 외래교수, 교회사)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초록]

본 글은 켈수스의 기독교 비판 중에서, 특히 예수를 중심으로 한 그의 비판을 다루었다. 이전의 비판가들과는 달리, 켈수스는 대중들 사이에 퍼진 소문보다는 자신이 직접 성경의 일부분을 읽고 헬라-로마의 전통적인 종교관과 철학적 신념에 근거해 기독교를 비판했다. 약 70년 뒤 오리게네스가 『켈수스에 반대하여』라는 작품을 통해 그의 비판의 내용을 방대하게 인용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이점만 보아도 켈수스의 비판은 기독교에 아주 위협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에 대한 켈수스의 비판은 내용 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예수의 신성에 관한 것인데, 켈수스는 동정녀 탄생은 예수가 지은 이야기로, 성육신 교리는 기독교인들의 맹신에서 비롯된 꾸며낸 이야기라 단정하며 예수는 단순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이 변화와 변형을 통해 죽는 존재로 될 수 없다는 그의 철학적 신념에 근거한 것이다. 둘째,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으로, 전자의 경우 역시 신이 고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그의 철학적 이해에서 지어낸 이야기라 주장하며, 고난을 피하게 해 달라는 예수의 기도는 자신의 불일치한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폄하했다. 켈수스에게 있어서 부활 사건 역시 단순히 꾸민 이야기에 불과했으며, 부활사건의 최초 목격자를 정신착란을 앓았던 여인이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켈수스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고대 철학자의 선인들의 가르침을 재인용 혹은 와전시킨 것, 그리고 이적들에 대해서는 속임수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주술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각각 비판했다. 본 연구를 통해, 예수에 대한 초기 로마 지식층의 이해가 어떠했는지,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이 무슨 내용으로 기독교를 변호해야만 했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켈수스, 예수, 주술사, 십자가 처형, 부활, 성육신

논문투고일 2021.07.19. / 심사완료일 2021.08.30. / 게재확정일 2021.09.08.

Ⅰ. 서론

AD 245-48년경,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Origenes, 185-254)는 『켈수스에 반대하여』 (*Contra Celsum*)라는 작품을 펴냈다. 서명(書名)에서 암시하듯, 켈수스(Celsus, AD 2세기)라는 이교도 철학자의 기독교 비판을 재비판한 작품이다.[1] 켈수스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시리아 지방 사모사타의 루키안(Lucian of Samosata, ca.125-180/190)은 『알렉산더, 그 거짓 선지자』라는 책을 켈수스에게 헌정한 바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켈수스는 그의 친구이자 에피쿠로스 학파의 인물로 묘사된다.[2]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 ca.260-340) 역시 켈수스를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3] 오리게네스의 경우, 그는 처음에는 켈수스를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4.36; 4.54)으로 소개했다가, 후에 플라톤 학파(4.83)로 수정했다.[4] 본론에서 논의되겠지만 이들의 증언과 그의 철학적 사고를 고려해 볼 때, 켈수스를 중기 플라톤주의자(middle Platonist)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5]

---

* 본 글에서의 '( )' 안의 숫자는 오리게네스의 『켈수스에 반대하여』 장과 절을 나타낸다. 원문은 Marcel Borret ed., *Origène. Contre Celse*, 5 vols. Sources Chrétiennes, 132, 136, 147, 150, 227 (Paris: Éditions du Cerf, 1967-76), 영역본은 Henry Chadwick, *Origen: Contra Celsu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3)에 근거했다. 사본과 역본에 대해서는 Miroslav Marcovich ed., *Contra Celsum Libri VIII* (Leiden: Brill, 2001), ix-xiv 참조하라.

1 '이교도'는 기독교인과 유대교인을 제외한 헬라-로마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사용함을 밝힌다.

2 Lucian of Samosata, *Alexander the False Prophet* 21, 25, 43, 61.

3 Eusebius, *Church History* 6.36.2.

4 오리게네스의 『켈수스에 반대하여』 서론 4에 보면, 켈수스는 이미 오랜 전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1장에는, 두 명의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이 켈수스라 불리었다고 하면서, 이 중 한 명은 네로시대, 다른 한 명은 하드리아누스(117-138) 황제 시대에 각각 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1.8).

5 채드윅은 켈수스의 철학을 절충주의적 플라톤주의자의 것이라고 했고, 윌켄은 그를 플라톤주의에 가깝지만 철학적 자세는 절충주의자(eclectic)라 보았다. Henry Chadwick, *Origen: Contra Celsu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3), xxvi; Robert L. Wilken, *Christians as the Romans Saw Them*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84), 95.
중기 플라톤주의는 BC 1세기부터 AD 2세기 까지 플라톤주의가 부활한 것으로, 세 개 신들의 계급으로 신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최고가 신의 마음(Divine Mind)으로 실재의 첫 번째 원리가 된다. 일자(the One) 혹은 선(the Good)으로 종종 불리며 변하지 않고 초월적이며 물질세계와 인간마음과도 그 어떤 직접적인 연결점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두 번째 신(혹은 마음)은

켈수스는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서 활동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의 활동은 그의 논리와 주장이 특히 플라톤 작품에 근거한 점, 유대교의 알레고리 해석에 친숙하다는 점 때문이다. 로마에서도 일정기간 거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켈수스가 마르키온파의 교회와 공교회 사이 벌어졌던 논쟁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2.27; 5.62; 6.51-53; 6.74; 7.25).

켈수스는 『참된 로고스』(Ἀληθὴς Λόγος)라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를 비판했는데, 오리게네스의 작품이 나오기 약 70년 전인 177-80년경 이였다.[6] 기독교를 비판한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는 최초의 사례이자, "체계적으로 다룬 첫 번째 작품"(the first systematic treatise)으로 평가된다.[7] 비록 이 작품은 현존하지 않으나, 앞서 언급한 오리게네스의 작품에서 그 내용을 상당수 얻을 수 있다. 오리게네스는, 켈수스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그의 말을 상당수 인용하고 있는데, 무려 3/4이나 되는 『참된 로고스』의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다.[8]

켈수스의 기독교 비판은 그 양에 있어서도 많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런 점 때문에 비판의 요지와 그 특징을 요약하기란 쉽지 않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신이다. 세 번째 신은 세상 영혼(the World Soul)인데, 인간의 영혼이란 물질세계로 내려와 유형화 된 신의 일부로 삶의 목적은 물질세계로부터 벗어나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말한다. Antonia Tripolitis, *Religions of the Hellenistic-Roman Age* (Grand Rapids, MI: Eerdmans, 2002), 41.

켈수스와 동시대 인물인, 피타고라스적 플라톤주의자(a Pythagoreanizing Platonis) 누메니우스(Numenius of Apamea, ca.150-200 AD) 역시 신의 세 체계를 말하는데, 최고의 마음(a supreme Mind) 혹은 신(God)을 아버지(Father) 혹은 선(the Good)이라 부르며, 두 번째 마음 혹은 조물주(demiurge), 그리고 세 번째 창조된 신과 세상 영혼(World Soul)이 그것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그것의 존재와 활동에 있어서 양상을 띠는데, 즉 이성적 영혼(rational soul)은 두 번째 신인 조물주에게서 기인한 것이고, 비이성적 영혼(irrational soul)은 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말한다.

6 작품의 제목은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Crouzel은 '참 말씀'(True Word), Chadwick, Hoffmann은 '참 교리'(True Doctrine), Grant, Frede는 '참 이야기'(True Account), Trigg는 '참 로고스'(True Logos) 등이 그것이다. Wayne C. Kannaday, *Apologetic Discourse and the Scribal Tradition: Evidence of the Influence of Apologetic Interests on the Text of the Canonical Gospel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4), 31 note 107 참조하라. 저작시기와 관련해, Hengel, *Johannine Question*, 6에서 160년으로 말하기도 한다.

7 Jeffrey W. Hargis, *Against the Christians: The Rise of Early Anti-Christian Polemic* (New York: Peter Lang, 1999), 19.

8 Hubertus R. Drobner, *Fathers of the Church: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rans. Siegfried Schatzmann (Peabody, MA: Hendrickson, 2007), 146-47.

그의 기독교 비판을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해 학계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세기 중반 안드레센(Carl Andresen)에 의해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무려 400페이지가 넘는 자신의 책, *Logos und Nomos*에서 기독교에 대한 켈수스의 입장과 비판을 네 가지로 제시했는데, (1) 예수가 하나님의 한 아들이라는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대한 반대(1.28-2.79), (2)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이자 새로운 한 종교로 적절치 못한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주장(3.1-4.99), (3) 한 신을 섬긴다고 기독교는 주장하나 실제로는 두 신을 숭배하는 왜곡된 새로운 종교로 "이성 없는 세계"(Welt ohne Logos)며 "교리 없는 세계"(Welt ohne Nomos)임(5.2-7.61), (4) 헬라-로마의 전통과 대중 종교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거부(7.62-8.75)가 그것이다.[9] 안드레센의 이 같은 분류는 『켈수스에 반대하여』에 수록된 내용의 순서에 근거한 것으로, 차례대로 기독론, 유대교와의 관련성, 유일신 사상, 사회와의 관련성으로 각각 그 주제를 각각 요약할 수 있다.

쿡(John Granger Cook)의 연구 또한 체계적이며 세부적인데, 특히 켈수스의 성경해석을 중심으로 크게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요한 자료이다. 먼저 구약(70인역)의 경우, 알레고리 해석, 창세기의 이야기, 모세, 율법, 교리, 선지자, 하나님의 분노를 다루고 있다.[10] 신약에서는, 복음서, 기독론, 히브리 성경의 사용, 헬라 선지자와의 비교,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우상숭배, 다신교, 지옥, 영생, 신론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11]

이들 학자들의 연구를 근간으로 해서, 초기 기독교에 대한 헬라-로마 제국의 이해와 비판에서 특히 켈수스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었고 그의 기독교 비판은 이후 활발한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12] 이 글은 그 중의 하나로, 기독론적

---

9 Carl Andresen, *Logos und Nomos: Die Polemik des Kelsos wider das Christentum* (Berlin: Walter de Gruyter, 1955), 39-43.

10 John Granger Cook, *The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Greco-Roman Paganism* (Tübingen: Mohr Siebeck, 2004), 55-149.

11 John Granger Cook, *The Interpretation of the New Testament in Greco-Roman Paganism* (Tübingen: Mohr Siebeck, 2000), 17-102.

12 이외 대표적인 주요 연구는 Pierre de Labriolle, *La réaction païenne Étude sur la Polémique Antichrétienne du Ier au VIe Siècle* (Paris: L'Artisan du Livre, 1934), 111-69; Stephen Benko, "Pagan Criticism of Christianity During the First Two Centuries A.D." *ANRW* 2.23.2 (1980), 1101-108; Robert L. Wilken, *Christians as the*

측면에서 그의 비판과 논증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 주제가 안드레센과 쿡을 비롯한 현대 학자들의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13] 아울러, 켈수스의 기독교 비판이, 대체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만 초점을 두었던 이전 이교도의 비판들과는 달리 예수라는 인물에 더 집중했다는 점에서도, 본 글은 그 연구 가치가 있을 것이다. 켈수스가 어떻게 예수를 이해하며 비판했는지, 그의 동정녀 탄생, 요단강에서의 세례받음,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다양한 이적들과 가르침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기독교에 대한 적대자로서의 켈수스의 이해와 비판에 있어서, 그 핵심 내용과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왜 그런 비판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상적 배경도 추적하고자 한다. 아울러 비판의 내용들이 당시 헬라-로마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함께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 특히 2세기 후반 기독교의 중심인물인 예수에 대한 로마 지식층의 이해와 태도가 어떠했는지, 또한 초기 기독교 변증가들이 무슨 내용으로 기독교를 변호해야만 했었는지를 헤아리는 안목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II. 본론

1. 켈수스 이전의 기독교 비판

켈수스의 기독교 비판은 그 내용에 있어서 이전 비판가들과는 확실히 차이가

Romans Saw Them, 94-125 등이 있다.

13 기독론적 측면에서의 켈수스의 비판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된다. 한 예로, 윌켄의 경우 그는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켈수스의 기독교 비판을 논했는데, 키베레 사제와 예언자, 기독교 교리의 결함, 예수의 이야기를 비신화함, 유대교에서 파생된 배교자, 종교와 사회 제도가 그것이다. 이중 예수와 관련해 다룬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다. Robert L. Wilken, *Christians as the Romans Saw Them*, 99-100, 105, 108-12. 주술사로의 예수에 대한 켈수스의 비판 역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왔는데, Morton Smith, *Jessu the Magician*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78), 57-60, 81-84; Robert E. van Voorst, "Jesus Tradition in Classical and Jewish Writings," in Tom Holmén and Stanley E. Porter ed., *Handbook for the Study of the Historical Jesus* (Leiden: Brill, 2011), 2165-67 등이 그것이다.

있었다. 이후 상세히 다루겠지만, 후자의 경우 기독교에 대한 이해와 비판은 단편적인 것이었고 체계적이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그 근거는 일반 대중들 사이에 퍼진 소문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보수적인 헬라-로마 제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소유한 지식으로서 켈수스는 단순히 소문에 의존하지 않았고 직접 성경을 읽고 기독교를 비판했는데, 이 점이 큰 차이점으로 기독교에 특히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그럼, 켈수스 이전 기독교에 대한 비판들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행해졌는지를 시대 순으로 간략히 살펴보자.

먼저 노예출신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투스(Epictetus, ca.50-ca.130 AD)의 경우를 보자. 94년 경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와 이탈리아 지역에서 모든 철학자들을 추방했을 때, 그는 니고볼리(Nicopolis)로 옮겨 철학을 가르쳤다. 이곳은 바울이 50년대 말경 겨울을 지냈던 곳이기도 한데(딛 3:12), 에픽테투스는 여기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14] 그가 언급한 "갈릴리인"(οἱ Γαλιλαῖοι)은 기독교인들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어린이들과 미치광이처럼 세상 권세자들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고 말한다.[15] 잘못된 지성에 기반을 둔 기독교인들의 대담무쌍한 용기를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언행이 일치하는 점에서 기독교인들을 칭찬하기도 했다.[16]

2세기 초, 기독교를 언급했던 첫 로마 지식층이었던 플리니우스,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의 경우, 이들은 공통적으로 기독교를 '새롭게 발생하고 타락한 미신'(*superstitio nova et prava*)으로 간주했다.[17] 이들 로마 지식층의 눈에 비친 기독 공동체는, 하나의 미신으로써 로마제국의 정치제도와 평화를 파괴하고 로마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를 다분히 가진 집단이었던 것이다.

견유학파(Cynic)로 로마에서 활동한 크레스켄스(Crescens, 2세기)는 기독

---

14 Eduard Meyer, *Ursprung und Anfänge des Christentums in drei Bänden III: Die Apostelgeschichte und die Anfänge des Christentums* (Stuttgart: J. G. Cotta'sche Buchhandlung Nachfolger, 1923), 530 note 1; Stephen Benko, "Pagan Criticism of Christianity." 1077.

15 Epictetus, *Discourses* 4.7.6.

16 Epictetus, *Discourses* 2.9.20-21. 여기서는 그는 두 종류의 유대인, 즉 언행이 일치 하지 않은 유대인과 세례를 받은 후 언행이 일치해진 유대인을 대조하는데, 이때의 세례는 기독교 세례를 지칭한 것으로 후자는 기독교인으로 볼 수 있다.

17 Pliny, *Epistles* 10.96; Tacitus, *Annals* 15.44; Suetonius, *Claudius* 25.4.

교인들을 무신론자와 불경건한 자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는데, 이는 군중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단순한 이유에서였다.[18] 유스티누스의 제자 타티안의 기록에 따르면, 유스티누스가 순교를 하게 된 데는 크레스켄스의 선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19]

미누키우스 펠릭스(Minucius Felix, 2/3세기)의 작품, 『옥타비우스』에 보면 이교도를 대표하는 카이킬리우스(Caecilius)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비천하고 무지하다는 점, 밤에 비밀스럽게 모인다는 점, 세계가 불로 멸망할 것이라며 위협하는 점, 신전을 경멸하고 우상에 침을 뱉는다는 점, 자주색 옷을 입은 공직자를 모욕하는 점, 공공 축제나 연극 등의 사회적 행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 영아를 죽이고 이것으로 식사를 한다는 점, 난잡한 성교를 행한다는 점 등이다.[20] 당시 기독교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편견과 부정적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그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모사타의 루키아누스(Lucianus, ca.115-ca.200)는 기독교들을 향해 이들은 "팔레스타인에서 못 박힌 그 사람"(*τὸν ἄνθρωπον τὸν ἐν τῇ Παλαιστίνῃ ἀνασκολοπισθέντα*)을 숭배한다고 비난하면서, 예수를 "율법을 준 첫 인물"(*ὁ νομοθέτης ὁ πρῶτος*), "소피스트"(*σοφιστὴν*)로 부르고 있다.[21] 저주를 받은 인간 예수를 숭배하는 기독교인의 어리석음을 부각시킨 것이다. 신약성경의 *σταυρόω*가 아닌 *ἀνασκολοπίζω*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루키아누스는 사복음서를 자료로 사용한 것 같지 않아 보인다.[22]

의사였던 버가몸의 갈렌(Galen, ca. 129-99)의 경우, 그는 기독교를 다른 시각에서 비판했다. 기독교에 대해 알게 된 때는 그가 로마로 갔을 때인 162년인데, 기독교를 "모세와 그리스도의 학파"(*Μωϋσοῦ καὶ Χριστοῦ διατριβὴν*)라 부르고 있다.[23] 그는 기독교를 하나의 철학파로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기독교인들은

---

18 Justin, *Second Apology* 3.
19 Tatian, *Oratio ad Graecos* 19.2.
20 Minucius Felix, *Octavius,* 8-9. Tertullian, *Apology* 7.1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열거된다.
21 Lucianus, *The Death of Peregrinus* 11, 13.
22 Craig A. Evans, *Life of Jesus Research: An Annotated Bibliography* (Leiden: Brill, 1989), 296.
23 Galen, *Method of Medicine* 2.4.

고대 헬라사상을 바탕으로 철학적 훈련 없이 모든 것을 맹신한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욕과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의 윤리와 가치들에 대해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점과 더불어 하나의 철학파(a philosophical school)라는 갈렌의 분류로 인해, 기독교들은 헬라-로마 사회에서 어느 정도 존경과 긍정적인 인식을 얻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24]

이전의 비판들이 대체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두었다면, 켈수스의 비판은 예수라는 인물에 더 집중해 있었다. 2세기 당시 대중들에게 퍼진 비판의 내용들, 즉 인육을 먹는 것, 근친상간, 영아살해, 난교 등은 켈수스의 목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25] 지식을 갖춘 철학자로서 켈수스는 자신의 기독교 비판의 내용이 무지한 군중들 사이에 퍼진 소문의 내용들과는 차별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26] 무엇보다도 켈수스의 기독교 비판이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가 직접 성경을 읽고 비판을 했다는 점 때문이다. 비록 오리게네스는 켈수스가 성경 본문을 실제로 알지 못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언급하나(6.12), 이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행해진 다양한 성경해석 방법을 알지 못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27] 켈수스는 마태복음(4.42)을 비롯한 다른 복음서들(6.16), 구약에서는 모세오경 중에서도 특히 창세기(70인역)의 내용에 아주 친숙했으며, 그 외의 책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식 혹은 거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28] 예수의 삶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에 대한 비판에서 켈수스는 특히 마태복음의 이야기에 주로 참고했다. 켈수스가 인용한 성경본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29]

---

24 Stephen Benko, "Pagan Criticism of Christianity," 1099-1100.

25 Robin Lane Fox, *Pagans and Christians*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6), 427.

26 Michael Bland Simmons, "Graeco-Roman Philosophical Opposition," in Philip F. Esler ed., *The Early Christian World* (London: Routledge, 2000), 845.

27 Michael Bland Simmons, "Graeco-Roman Philosophical Opposition," 846.

28 Karl Pichler, *Streit um das Christentum: Der Angriff des Kelsos und die Antwort des Origenes* (Frankfurt am Main: Lang, 1980), 43-50; Stephen Benko, *Pagan Rome and the Early Christian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148-49.

29 Marcel Borret, *Origène. Contre Celse*, 5.251-72에 있는 분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성경	총 횟수	성경본문 (『켈수스에 반대하여』)
창세기	16	2:26-27(7.62), 2:7(4.36), 2:21(4.38), 6:6-7(6.53), 8:17(6.29; 7.18), 9:1-7(6.29; 7.18), 11:1-9(4.21), 12:2-3(6.29), 15:5(6.29), 16:14(4.44), 19:1-29(4.21), 21:19(4.44), 26:22(4.44), 34:2(4.46), 34:25-31(4.46), 50:4-14(4.47)
출애굽기	2	17:13-16(7.18), 34:11(7.18)
민수기	1	21:34-35(7.18)
신명기	7	1:26-45(7.18), 7:4(7.18), 9:14(7.18), 15:6(7.18), 25:19(7.18), 28:11-12(7.18), 29:2-3(7.18)
다니엘서	1	6.16-23(7.53)
요나서	1	4:6(7.53)
마태복음	14	2:1-12(1.58), 5:39(7.18), 5:39(3.58), 6:24(7.68), 6:24(15.14), 6:26-29(7.18), 11:22-24(2.76), 11:25(7.18), 19:24(6.16), 19:24(7.18), 20:25-27(7.18), 23:13-29(2.76), 26:39(2.24), 27:34(4.22),
누가복음	8	3:1(1.58), 6:29(7.18), 6:29(7.58), 12:24(7.18), 12:27(7.18), 16:13(7.68), 18:25(6.16), 24:4(5.52)
요한복음	2	10:23-24(1.67), 20:12(5.52)
고린도전서	1	10:20ff(8.28)
갈라디아서	1	6:14(5.64)
골로새서	1	2:18(1.26)

**확실치 않은 것: 눅 16:13(8.16)

이제 예수에 대한 켈수스의 비판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내용상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예수의 성육신과 세례

밝혀둔다.

사건을 둘러싼 신성에 관한 비판의 내용을 살펴본 뒤, 십자가 처형과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예수가 행한 이적과 가르침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성육신과 세례를 둘러싼 그의 신성에 대해

켈수스가 어떻게 예수의 출생이야기에 대해 비판했는지, 오리게네스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 그(예수)는 자신의 출생이야기를 한 처녀로부터 꾸며냈는데... 그는 유대인의 조그만 마을 출신이고, 가난한 한 시골 여인으로부터 태어났는데 그녀는 방적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켈수스)는 말하기를, 그녀는 직업이 목수였던 자신의 남편에게서 쫓겨났는데 이는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남편에게서 쫓겨난 후 방랑하는 중 수치스럽게 예수를 비밀리에 낳았다고 말한다(1.28).

켈수스의 시각에서, 동정녀 탄생은 예수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에 지나지 않았다. 켈수스는 다른 곳에서, 예수의 어머니는 간음했고 그 상대는 판테라(Πανθήρα, Panthera)라 불리는 한 로마 군인이었다(1.32)고 언급한다. 예수를 사생아라고 비난한 것인데 이 주장의 출처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 Jesus ben Panthera가 탈무드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을 보면 유대교 문헌에서 참고했을 가능성이 크다,[30] 유대교 전통에서 예수의 아버지 이름은 Panthera (Pandera, Pantiri)와 함께 Stada (Satra), 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왜 동일 인물이 두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설명하기에, 켈수스의 경우처럼 예수의 신상에 대해서는

30 *Tosefta*, Hullin 2:22 (*Jerusalem Talmud*, Shabbat 14.4; *Jerusalem Talmud*, Avodah Zarah 2.2); *Tosefta*, Hullin 2.24.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Henry Chadwick, *Origen: Contra Celsum* 31 note 3; Peter Schäfer, *Jesus in the Talmud*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15-21 참조하라.

소상히 밝히고 있지 않다.[31] 또한, 판테라(πανθήρα)라는 단어가 처녀를 뜻하는 παρθένος (parthenos)와 비교할 때 그 철자와 발음에서 유사한 점은 흥미롭다. 이 같은 켈수스의 비판에 대해 오리게네스는, 예수는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기적에 따라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고 반박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인 임마누엘이라는 칭호는 그의 사역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름이라고 부언 설명하기도 했다(1.33-34).

켈수스는, 마리아는 부요하지 않고 왕족 혈통도 아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1.39). 예수와 그의 어머니의 낮은 사회적 신분, 그리고 예수의 출생을 둘러싼 윤리적, 도덕적 문제를 비판한 것이다. 당시 간음죄에 대한 로마법의 형벌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켈수스의 비판은, 기독교의 기원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주었음에 분명하다. 로마법에서 간음은 통상 기혼 여성이 다른 남자와 관계하는 것을 말했는데, 간음죄에 대한 처벌은 아주 엄격했었다. 가령, 남편은 간음한 아내와 관계한 남자를 현장에서 바로 죽일 수 있었고, 딸이 간음할 경우 그 아버지는 딸과 그 상대방 역시 죽일 수 있었고, 상류계층의 부녀자의 경우 1/2의 결혼 지참금(dowry)과 1/3의 재산(goods)이 몰수되어 유배지에 보내졌다.[32] 켈수스가 기독교 기원을 다루면서, 마리아를 간음한 여자로, 출산하기까지 방랑했던 여인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를 사생아로 주장한 것은, 기독교의 윤리성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위협적인 도전이었음에 분명하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에 대해서, 켈수스는 하나님은 본질상 부패한 육체와 사랑을 나룰 수 없다고 말한다(1.39). 신의 완전한 초월적 특성상, 신이 물질세계와의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예수의 신적 수태와 태생은 그리스의 영웅들인, 페르세우스(Perseus), 암피온(Amphion),

---

31 Peter Schäfer, *Jesus in the Talmud*, 17-19. 클라우스너(Klausner)의 설명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예수가 "υἱός τῆς Παρθένου" (동정녀의 아들)이라 불려진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그를 조롱하고자 "표범의 아들" (Ben ha-Pantera)이라 불렀다고 한다. 참고로, 표범은 라틴어로 panthera, pardu로 불린다. Joseph Klausner, *Jesus of Nazareth: His Life, Times, and Teaching* (New York: Macmillan, 1925; reprinted New York: Block, 1997), 24.

32 Paul, *Opinions* 2.26.1; 2.26.7; 2.26.14. 로마법에서, 혼인이 지속되는 신부의 결혼 지참금은 남편의 권한에 놓이게 되지만 이혼하게 될 경우 아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아이아쿠스(Aeacus), 미노스(Minos)와 비교되기도 한다(1.67). 켈수스는 이들 영웅들의 태생 이야기와 이적 행위들의 이야기가, 비록 그럴 듯 해 보이지만 결국 예수의 이야기보다도 더 나은 것이라 보았다. 예수는 "죽을 육체로부터"(ἐκ θνητοῦ σώματος) 태어났고(3.41), 그의 몸은 금, 은, 돌보다도 "더 부패하기 쉬운 것"(φθαρτότεραι)이었다는 것이 켈수스의 결론이자 비판이다(3.42).

켈수스의 철학적 입장에서 예수의 성육신은 결코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켈수스는 변화와 변형을 경험하는 것은 죽는 존재(mortal being)로, 신은 결코 이 같은 변화를 겪지 않는다고 보았다(4.14). 즉, 신의 존재란 순결하고 완전한 신성에서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으로 변할 수 없고, 선에서 악으로, 아름다운 것에서 추한 것으로, 행복해서 불운으로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했다(4.14). 결국 신이 지상에 내려왔다고 믿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이 주장은 신과 물질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원칙을 깨뜨렸다는 그의 철학적 이해에 근거한 것이었다.

켈수스는 다른 관점에서도 성육신 교리를 비판하며 반문한다. 예를 들면, 만약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모든 곳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들 사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였는가(4.2)라고 반문하며, 또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어떤 특정 시점에 인간의 몸으로 나타났다면, 예수 이전에 살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으며, 이들 사람들은 왜 돌보지 않았는가(4.8)라고 질문한다. 그러면서, 켈수스는 이 땅에 내려온 것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천사들, 혹은 다른 존재들, 아니면 다이몬(δαίμονας)이며 이들을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숭배했다고 비판한다(5.2). 또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만이 땅으로 내려온 천사가 아니라 60 혹은 70명의 천사들도 벌을 받아 이 땅에서 사슬에 묶였는데, 이들의 눈물이 곧 온수라고 설명한다(5.52).[33] 『에녹서』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천사들이

33 『에녹서』 6-7에 보면,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들 200명의 천사는 각각 여자와 결혼을 해 거인을 낳았고, 여자들에게 의료, 저주, 약초뿌리와 관목을 잘라내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또한 *Testament of Naphtali* 8에 따르면, 주가 이 땅에 올 때 70명의 수종 천사를 데리고 왔는데 미가엘이 가장 높은 지위의 천사였고, 이들 천사들에 명해 노아 자녀들에게 난 70 가족에게 70가지 언어를 가르치라고 했다고 한다.

물에서 심판받았을 때 온수가 되었고 다시 이들이 올라갔을 때 차가운 물이 되었다는 것, 목자들로 소개되는 70명의 천사들의 내용 등이 그것이다.[34]

이처럼 성육신 교리에 대한 켈수스의 비판은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들이 숭배하는 예수는 "신"(θεὸν)도 아니고 "다이몬"(δαίμονα)도 아닌 "송장"(νεκρὸν)에 불과한 것이라 주장했는데(7.68), 이는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를 송장이라 비꼬아 한 말이다. 또한 예수가 죽었다는 점을 들어, 그는 "유령"(εἴδωλον)도 아니고, 심지어 이보다도 더 비참한 존재였다고 말했다(7.36).[35] 이런 예수를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신으로 만들어 숭배한 장본인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며, 이는 예수에 대한 이들의 지나친 찬양해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한다(8.14). 켈수스는, 이 같은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부끄럽고 일고의 논박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는데(4.2), 그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이성적 사고 없이 맹목적인 믿음만을 추구한 신앙주의(fideism)에 불과한 것이었다. 벤코(Stephen Benko)는 육체의 부활과 함께 성육신 교리에 대해서 가장 날카롭게 비판한 인물로 켈수스를 들기도 했는데,[36] 그의 평가는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켈수스의 시각에서 보면 결국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AD 1세기 아피온이 유대인들을 향해 무신론자라 비난했던 것과 유사하다.[37]

예수가 신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켈수스는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예수가 모든 유대 법들을 준수하고 이들의 희생제사에도 참여했다면, 이런 점 때문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2.6). 켈수스는, 예수가 먹고 마시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신의 육체란 결코 보통 사람의 육체와 같을 수 없고 또한 그 같이 먹고 마시지 않으며 소리도

---

34 *Enoch* 67.11; 89.59. 70명의 천사들은 70개의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는데, 각각의 천사는 각 나라를 위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워졌다. Daniel Carl Olson, *A New Reading of the Animal Apocalypse of 1 Enoch: "All Nations Shall be Blessed"* (Leiden: Brill, 2013), 190.

35 신약성경에서 헬라어 εἴδωλον은, 우상(idol) 혹은 거짓 신으로 번역된다(행 7:41; 15:20; 고전 8:4; 살전 1:9 등).

36 Stephen Benko, "Pagan Criticism of Christianity," 1103.

37 Apion, *Contra Apionem* 2.148.

갖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1.69-70). 이를 통해 예수는 단순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는 헬라 신들에게 있는 영액(ἰχώρ, ichor)과 같지 않다고 보았다(2.36). 이는 켈수스가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군인의 창에 찔렸던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요한복음의 기사(요 19:34)를 참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켈수스는 예수를 천사(ἄγγελος)라고 말하기도 하며(5.52), 혹은 다이몬(δαίμων)으로(8.39), 위대한 거짓말쟁이(2.7)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켈수스는 자신의 중기 플라톤주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독교 신학을 접근하고 해석했는데, 예수의 신적 특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켈수스는 한편으로 예수를 다이몬으로도 보기도 했었다. 신약성경에서 사용된 용어 '다이몬'의 용례를 보면 한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마귀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38] 켈수스가 이해한 다이몬은 성경에서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니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를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Ξένων δαιμονίων καταγγελεὺς, 행 17:18)이라 불렀는데 여기서 신들, 즉 다이몬은 중립적인 의미를 지닌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 중립적인 의미가 켈수스가 사용한 다이몬의 뜻이라 볼 수 있다. 즉, 다이몬은 신과 사람 사이 틈새를 이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39] 양측 모두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에 신의 불멸과 인간의 고통을 말할 수 있었고, 또한 선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것처럼 다이몬의 경우도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존재했다.[40] 켈수스에게 있어서 예수 역시 이 다이몬 중의 하나로 여겨지기

---

38 마 11:18; 17:18; 막 7:26; 눅 11:15; 요 8:48-49; 고전 10:21-22; 계 9:20 등.

39 고대 헬라문헌에서는 다이몬(δαίμων, *daemon*)은 낮은 등급의 신들(lesser deities), 운명, 죽음, 성격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Geoffrey William Bromiley trans. and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1964), 2.1-20; Dorian Gieseler Greenbaum, *The Daimon in Hellenistic Astrology: Origins and Influence* (Leiden and Boston: Brill, 2016), 4-5 참조.

40 John Dillon, *The Middle Platonists: 80 B.C. to A.D. 220*, revised ed.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31-32. 오리게네스의 경우, 다이몬은 모두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되는데, 그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도 불리지 않고, 악으로 돌아선 이들은 마귀의 천사들이라 설명하면서도, 다이몬의 경우는 모두가 다 악하다고 말한다(8.25). 다이몬과 천사에 대한

도 했던 것이다.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은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신비와 예수의 신성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주요 본문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켈수스의 입장은 아주 부정적이다. 그는, "어떤 믿을만한 목격자가 이 환상을 보았으며,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는 하늘에서의 음성을 누가 들었던가"라고 하면서(1.41),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과 하늘로부터의 음성에 대한 목격자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과 믿을 가치가 전혀 없다고 일축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켈수스는 세례 이야기를 비판하는데, "만약 그(예수)가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다면, 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를 했던가? 만약 그가 주목 받기를 원했다면 왜 핍박을 받고 죽어야만 했는가?"라면서(2.72), 딜레마 질문을 통해 예수의 언행에 대한 모순점을 비판한다.

헬라어 σφραγίς이라는 단어는 초대 교회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세례에서의 인침을 뜻했는데,[41] 이 단어와 관련해서도 켈수스는 자기만의 해석을 내놓는다, 즉 인침을 행하는 자를 아버지로, 인침을 받은 자는 젊은 아들로 부르면서, 예수는 "나는 생명나무의 백유로 기름부음을 받았다"(κέχρισμαι χρίσματι λευκῷ ἐκ ξύλου ζωῆς)는 말을 했다고 설명한다(6.27). 이와 유사한 내용이 『위-클레멘트』(*Pseudo-Clementines*) 문헌에 나오는데, 태초에 아버지는 생명나무의 기름으로 아들에게 부었다고 언급하고 있다.[42] 『빌립복음서』에서는 낙원 중앙의 생명나무는 올리브 나무인데 여기서 성유가 나오고 성유에서 부활이 나온다고 서술하고 있다.[43] 이런 점을 볼 때, 켈수스는 일부 영지주의 분파들의 이론을

오리게네스와 켈수스의 이해에 대해서는 Rangar Cline, *Ancient Angels: Conceptualizing Angeloi in the Roman Empire*, 4-8 참조하라.

41 G.W.H. Lampe, *A Patristic Greek Lexicon* (Oxford: Clarendon, 1961), 1355-57.

42 *Pseudo-Clementines, Reg.* 1.45. 여기서 아들은 파르티아인들에게는 아르삭(Arsac)으로, 로마인에게는 시저로, 유대인에게 메시야로 그 이름이 알려졌다고 한다. 참고로, 『위-클레멘트』 문헌은 열권으로 구성된 *Recognitions*, 스물 편의 설교로 구성된 *Homilies*가 있는데, 전자는 로마의 클레멘트의 자서전격 이야기다.

43 James M. Robinson. ed, *The Nag Hammadi Library in English* (Leiden: E.J. Brill;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77), 153. 또한 기름부음은 세례보다 뛰어난 것이고, 그리스도들이라 불리는 이유는 세례가 아니라 기름부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역시 기름부음을 받았기에 그렇게 불린다고 말한다.

참고했음을 보게 된다.

3.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

켈수스의 비판은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에서도 이어진다.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 의해 배신을 당한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평가한다. 수천 명을 거느린 장군, 심지어 사악한 강도 집단의 두령조차 배신당한 일이 없다면서 예수가 당한 배신은 어처구니없는 것이었다고 말한다(2.12). 이에 오리게네스는 장군이나 두령들이 배신당하는 일은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2.12). 겟세마네 동산 예수의 기도에서, 켈수스는 마태복음 26장 39절, "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Ὦ πάτερ, εἰ δύναται τὸ ποτήριον τοῦτο παρελθεῖν)를 인용하며 예수가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울부짖은 것은 모순된 것이라 말한다(2.24). 신성(divinity)은 감정이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그의 철학적 사고에 근거한 비판으로, 예수의 경우 자신이 하나님이라 말하면서도 실제 행동 즉, "죽기까지 매우 고민한 것"(마 26:38, περίλυπός ἕως θανάτου)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켈수스는, 의인이라 말하면서 악을 행함을 보여주고,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살인자임을 보여주고, 죽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죽게 됨을 보여준다(2.16)는 내용으로 예수를 비판하기도 했다. "말하는 것"(λέγων)과 "보여주는 것"(δεικνύει)의 불일치를 근거로 비판한 선명한 사례이다.[44] 예수는 자기 자신이 공언했던 그 어느 것도 실제 삶과 행동에서 보여주지 못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그의 결론적 평가라 볼 수 있다(2.9).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는, 켈수스는 십자가 고통을 받기 위해 예수가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2.25), 만약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실제 일어났다면 처형을 집행했던 자들에게 반드시 형벌이 가해졌을 것이라 말한다(8.39).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고난은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켈수스는 헬라의 신들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신성의 불-고통성(divine

---

44 Karl Olav Sandnes, *Early Christian Discourses on Jesus' Prayer at Gethsemane: Courageous? Committed? Cowardly?* (Leiden: Brill, 2016), 66.

impassibility)을 믿었기에,[45] 그로서는 예수의 신성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고초로 인해 죽음을 당한 것과 관련해 켈수스는 예수보다 더 뛰어난 인물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리스의 영웅들로는 헤라클레스(Heracles), 아스클레피우스(Aesculapius), 오르페우스(Orpheus)가 그들이다(7.53). 철학자로는 회의주의 아버지라 알려진 아낙사르쿠스(Anarxarchus, ca.380-ca.330 BC), 스토아학파의 에픽테투스(Epictetus, ca.55-135) 이들은 심한 고초 속에서도 고결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면서 예수보다 더 훌륭한 인물로 제시했다.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는 물고기 배속에서 삼일을 지낸 후 살아난 요나,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을 더 나은 인물로 보았다(7.53). 결국 켈수스의 생각에, 예수는 헬라의 영웅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등급의 주술사에 불과했던 것이다. 인간 ➜ 영웅 ➜ 반신 ➜ 신으로 승화할 수 있는 그의 헬라적 사고에서, 예수가 사람에서 신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영광을 얻기에 합당했던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 켈수스의 논지라 볼 수 있다.[46]

예수의 부활사건에 대한 켈수스의 비판을 보자. 그는 이 사건의 이야기의 출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누가 이것을 말했는가? 당신이 말했듯이, 정신착란의 한 여인이 아니었는가? 혹은 동일한 주술에 현혹된 이들 중 일부가 아닌가? 이들은 어느 정도 확신과 희망적인 생각에서 꿈을 꾼 자로 착각 (즉, 수천 명에게 일어났던 체험)으로 인해 망상에 빠진 자들이 아닌가? 아니 더 그럴 듯한 것은, 이들은 이 같은 몽상의 이야기로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길 원했었고, 또 이 터무니없는

45 John Granger Cook, *The Interpretation of the New Testament in Greco-Roman Paganism*, 50. 높은 신은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켈수스의 생각에 오리게네스도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면서 오리게네스는 인간의 삶으로 와서 죽음을 경험한 것은, 바로 '신성의 어떤 광채와 본질의 형상'(τῆς θείας φύσεως «ἀπαύγασμα» καὶ «χαρακτήρ» τις)이 육신이 된 예수의 영혼으로 함께 한 것이었다고 말한다(7.17). 그러면서, 오리게네스는 '그의 로고스의 본질은 우리가 아는 예수의 인성의 것과는 다른 것이다'(ἄλλος δή που ὁ περὶ τούτου καὶ τῆς οὐσίας αὐτοῦ λόγος ἐστὶ παρὰ τὸν περὶ τοῦ νοουμένου κατὰ τὸν Ἰησοῦν ἀνθρώπου)라고 말한다(7.16). 그가 사용한 용어는 히1:3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ἀπαύγασμα τῆς δόξης καὶ χαρακτὴρ τῆς ὑποστάσεως αὐτοῦ)의 용어와 동일하다.

46 Robert L. Wilken, *The Christians As the Roman Saw Them*, 105.

이야기로 다른 가난뱅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기를 원했던 것이다(2.55).

켈수스가 목격자로 "정신착란의 한 여인"(Γυνὴ πάροιστρος)을 지목한 것은, 증인들의 진실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켈수스가 사용한 헬라어 단어 πάροιστρος는 '~로부터' 혹은 '~옆의'를 뜻하는 παρά와 쇠파리(gadfly)를 뜻하는 οἶστρος의 합성어로, 비유적으로 곤충이 찌르는 것처럼 누군가를 미치게 만드는 것을 뜻한다.[47] οἴστρημα는 이런 정신착란의 상태를 일컫는 용어로 보이는데, 『교부 헬라어 어휘집』에는 특히 "마귀의 괴롭힘, 선동"(goading, incitement of demons)으로 정의하고 있다.[48] 이런 점을 참고할 때, 정신착란의 여인은 일곱 귀신에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로, 켈수스는 그녀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지적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49]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의 증언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마 28:1-8; 막 16:1-11; 눅 24:1-12; 요 20:1-18),[50] 이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 일곱 귀신에 들렸던 것을 언급한 것은 마가복음(16:9)이다. 켈수스는 특히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참고하며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에 대한 비판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리게네스는 켈수스를 향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가 죽고 장사된 이야기를 믿는 반면,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꾸민 이야기"(πλάσμα)라고 말하는 그의 모순성을 도리어 지적하기도 했다(3.43). 예수의 부활과 관련된 켈수스가 던지는 또 다른 질문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왜 스스로

---

47 문자적으로 자궁에서의 고통을 뜻하는 ὑστερικός는 일시 호흡 정지나 경련과 같은 증상의 여자가 앓는 병을 나타내는데, πάροιστρος가 함축된 뜻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듯하다. 이 용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Margaret Y. MacDonald, *Early Christian Women and Pagan Opinion: The Power of the Hysterical Wom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3 note 7; Clayton Coombs, *A Dual Reception: Eusebius and the Gospel of Mark*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16), 84-85를 참조하라.

48 G.W.H. Lampe, *A Patristic Greek Lexicon*, 946.

49 James A. Kelhoffer, *Miracle and Mission: The Authentication of Missionaries and Their Message in the Longer Ending of Mark* (Tübingen: Mohr Siebeck, 2000), 171 note 48.

50 켈수스는 다른 본문에서, 천사가 예수의 무덤에 내려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누군가는 한명의 천사라고 말하고 다른 이는 두 명의 천사라고 말했다고 한다(5.52). 한 명의 천사는 마 28:2, 막 16:5이며, 두 명의 천사는 눅 14:4, 요 20:12인데, 켈수스는 사복음서 모든 내용에 친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덤을 열 수 없었던가(5.52), 예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지옥에까지"(εἰς ᾅδου) 가서 이들에게 전파해야만 했던가(2.43) 등 예수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부활 후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은 켈수스의 시각에서 볼 때 "그림자"(σκιάν)에 불과했던 것이다(3.22).

더 나아가 켈수스는, 예수의 부활처럼 신자들의 몸의 부활을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주장 역시 반대했는데 하나님은 자연에 정한 법칙과 이치를 거슬러 행하실 수 없다는 그의 견해 때문에서다. 이런 이유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πᾶν δυνατὸν τῷ θεῷ)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터무니없는 것이라 비판한다(5.14). 하나님은 자연과 이성의 법칙에 함께 종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켈수스의 시각에서, 기독교인들의 부활신앙은 헬라-로마의 신앙을 단순히 잘못 이해한 것이었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켈수스는 "은총 입은 영혼들"(ψυχαῖς εὐδαίμοσι)이 머물 장소를 말하면서 이곳은 "복 받은 자들의 섬"(οἱ μὲν μακάρων νήσους) 혹은 "엘리시온 평원"(Ἠλύσιον πεδίον)이라 불린다고 하면서, 호메로스의 엘리시온 평원을 인용하며 플라톤의 사상을 언급하고 있다(7.28). 당시 헬라-로마 사회 대중들은 사람이 죽을 때 그의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믿었는데, 선을 행한 자는 엘리시온 평온에, 악한 자는 영원한 형벌에, 중간 그룹은 육체 없이 그림자의 형태로 정원에서 방황한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중간 그룹에 속한다.[51] 켈수스는 사후 인간 영혼의 여정에 대해서, 페르시아인들과 미트라교의 것을 들어서 설명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늘에는 두 궤도가 있는데, 하나는 고정된 별들(즉, 항성들)과 다른 하나는 행성들의 궤도로, 인간의 영혼은 바로 이들 두 궤도를 지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 사다리에는 일곱 개의 문이 있고, 그 끝에는 여덟 번째 문이 있는데, 문들의 이름은 차례대로 납, 주석, 동, 철, 합금, 은,

---

51 Lucian of Samosata, *Dialogues of the Dead* 1-9. 루키안은 대중들의 이와 같은 믿음을 비웃었고, 또한 당시 대중들 사이에 행해진 장례문화를 비웃기도 했는데, 아케론 강(Lake Acheron)을 건너기 위한 배 삯으로 시신의 입 안에 동전 하나를 넣고, 케르베루스(Cerberus)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시신에 옷을 입히고, 영양물을 위해 이들의 묘에 포도주를 뿌리는 것이었다(10-12, 19). 그리스 신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구에 포로가 된 영혼은 반드시 아케론 강을 건너서, 머리가 셋 달린 난폭한 개, 케르베루스를 지나 심판자인 미노스(Minos)와 라다만투스(Rhadamanthus) 앞에 서야 한다는 내용이다(Virgil, *Aeneid* 6).

금이다(6.22).[52]

4. 이적과 가르침에 대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이적들에 관해서 켈수스는 어떻게 이해하며 비판했을까? 사실 그는 일부 기적들에 대해서는 인정했는데, 예수가 병을 고친 것, 죽은 자를 살린 것, 몇 개의 빵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것 등이 그것이다(1.68). 하지만, 켈수스의 비판의 요점은 예수가 이적들을 행했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가에 있었다. 다음의 진술에서 그의 비판의 요점을 알 수 있다.

> 예수는 이집트에서 비밀리에 양육되었고 노동자로 살아갔으며 거기서 어떤 주술의 능력을 시도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며, 이런 능력 때문에 예수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부여했다(1.38).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유아 시절 이집트로 피신한 사건의 이야기를 그가 참고한 것이다. 예수는 이집트에 머물렀을 때에 주술의 능력을 배웠고 이런 주술의 능력은, 주술사와 요술쟁이들이 장터에서 행하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비판의 요지이다. 예수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주술에 의해서"(γοητείᾳ)였으며(1.6), 따라서 예수는 "사악한 주술사"(μοχθηροῦ γόητος)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1.71), 아울러, 기독교인들 역시 능력을 얻는 원천으로 "어떤 다이몬의 이름과 주문을 외우는 것"(δαιμόνων τινῶν ὀνόμασι καὶ κατακλήσεσι)이었다고 비판한다(1.6). 이에 대해 오리게네스는,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함으로써 사단을 내쫓는 것이며(1.6),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전한

52 그리고, 납은 크로노스(토성)와 관련되어 별의 속도를 느리게 하고, 주석은 아포르디테(금성)으로 주석의 밝고 부드러움과 비교되며, 동은 제우스(목성)로 동으로 만들어진 견고함을 나타내며, 철은 헤르메스(수성)와 함께 돈을 벌며 힘든 모든 일들에 의지가 되며, 합금은 혼합의 결과로 그 질에 있어 균일치 않고 다양한 문이며, 은은 은문으로서의 달을, 마지막 금은 금문으로서의 태양과 관계된다(6.22).

이유는 주술 때문이 아니었다고 변호하기도 했다(1.38). 유대인들 역시 예수를 주술사라고 비난했는데, 이점에서 켈수스는 이들 유대인들의 자료 역시 참고했을 가능성도 크다. 바빌론 탈무드에 따르면, 스타다의 아들(Ben Stada)이 자신의 몸에 상흔을 내어 이집트로부터 주술을 가져왔다고 언급한다.[53] 스타다의 아들은 예수를 지칭한 것인데, 켈수스의 비판 이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정한 주술을 소개한 인물로 비판했음을 알 수 있다.[54]

켈수스는, 예수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 역시 "주술사"(γόητας)라고 부르면서 이들은 지식층이 아닌 무지한 대중들을 현혹한다고 비판한다(6.14). 켈수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이라고 하면서, 일부 기독교 장로들(πρεσβυτέροις)이 "이교도 다이몬의 이름과 마법의 주문이 포함된"(βάρβαρα δαιμόνων ὀνόματα ἔχοντα καὶ τερατείας) 책들을 소지하고 있다고 말했다(6.40). 이들 장로들에 대해 딕키(Matthew Dickie)는 순회하는 주술사들이라고 보았지만,[55] 채드윅의 지적처럼 이들은 영지주의자들로 켈수스와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6] 배사교파(the Ophites)에 관한 긴 논쟁(6.24-6.42) 가운데 이들 장로들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 장로들은 배사교파 영지주의자로 보인다. 헬라어 단어 뱀(ὄφις)에서 유래한 배사교 신자들(Ὀφιανοί, 라틴어로 *Serpentini*라 불림)은 뱀을 지혜의 전달자, 신적 지혜의 화신으로 여겨 숭배했고 극단적 도덕 폐기론자(antinomians)였다.[57]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과 관련해 켈수스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주장이라면서 기독교를 비판한 적이 있는데, "창조주는 저주받은 하나의 신"(κατηραμένον θεὸν τὸν δημιουργόν)으로서 이 신이 저주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첫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갖게 했던 뱀을,

---

53 Babyloonian Talmud, *Shabbat* 104b. 유스티누스의 경우, 예수가 주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졌다는 이 같은 비난의 부당성을 언급할 뿐, 이집트에서 배웠다는 내용은 없다(*1 Apology* 30).

54 R. Travers Herford, *Christianity in Talmud and Midrash* (London: Williams & Norgate, 1903), 35-41; 54-56.

55 Matthew Dickie, *Magic and Magicians in the Greco-Roman World* (London: Routledge, 2001), 236-43.

56 Henry Chadwick, *Origen. Contra Celsum*, 355 note 4.

57 배사교파에 대한 교부들의 증언으로는 Irenaeus, *Adversus Haereses* 1.30; Pseudo-Tertullianus, *Adversus Omnes Haereses* 2.1; Epiphanius, *Panarion* 36을 참조하라.

저주했기 때문이었다(6.28)는 내용이다.[58] 이들 기독교인들은 배사교파로, 켈수스를 비롯한 당시 비 기독교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보여준다. 즉, 비-기독교 지식층조차도 기독교 정통 그룹과 분파들(Christian sects) 사이 차이점을 뚜렷이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의 기독교로 보았던 것이다.

켈수스는, 예수와 기독교인들을 주술을 행하는 자로 직접 언급한 최초의 이교도 비판가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 점은 122년 경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에 의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암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에토니우스는 기독교인들을 "근래 발생한 악을 행하는 미신에 빠진 집단의 사람들"(*genus hominum superstitionis novae ac maleficae*)이라 말하면서, 이들에 대한 형벌의 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59] 여기서 라틴어 *maleficus*는 형용사로는 '주술적인' 의미를, 명사로는 '주술사'의 뜻을 각각 나타낸다.[60] 이 같은 어원적 의미를 고려할 때,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술과 연관되어 비난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고, 켈수스의 비판보다 50년 정도 앞서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61]

켈수스의 시각에서 볼 때, 주술사 예수로 시작된 기독교 역시 미신(*superstitio*)의 범주에 들었다(1.9; 1.17; 7:41).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미신은 참된 종교와 반대되는 개념이었는데, 이는 키케로(Cicero, 106-43 BC)의 설명에서 잘 나타난다. 그는 *superstitio*와 *religio*를 대립시키면서, 신을 예배하는 최고 순결하고 가장 신성한 방법은 항상 깨끗하고 완전하며 그리고 오염되지 않는 마음과 목소리로 신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것이 곧 참된 *religio*라고 정의했다.[62] 대(大) 플리니우스는 점을 쳐서 예언하는 것이나 주술을 행하는 것을 일컬어 미신이라 칭하면서, 특히 주술사들은 윤리적인 근거에서 볼 때 인류의 적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63] 타키투스 역시 신비적인 행위를

---

58 오리게네스는 이들 배사교들은 입회 전에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난 뒤에야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6.28).

59 Suetonius, *De Vita Caesarum.* Nero 16.2.

60 Morton Smith, *Clement of Alexandria and a Secret Gospel of Mark*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234.

61 Robert L. Wilken, *The Christians As the Roman Saw Them*, 98.

62 Cicero, *On the Nature of the Gods,* 2.28.

63 Pliny, *Natural History,* 30.27.

자행하는 주술과 관련시켜 미신을 이야기하고 있다.[64] 따라서, 켈수스가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가장 먼저 기독교인들의 비밀스런 모임을 꼬집어 지적한 것은 그로서는 당연했을 것이다. 그는 이런 행위를 법에 반하는 것으로, 공개적인 모임은 법에 허락되지만 비밀스런 모임은 불법적임을 분명하게 지적했다(1.1). 기독교는 미트라(Mithra)의 숭배자와 브리기안의 신 사바니우스(Sabazius)의 숭배자들과 같이 이성 없이 맹신하는 미신적인 집단으로 함께 분류되었다(1.9). 예수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운동에 포함된 비이성적인 행위들이나 비도덕적인 요소들은 로마 사회가 추구하는 덕과 정의, 그리고 윤리를 위협하는 악한 요소로 간주되었고, 결국 켈수스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종교적인 측면을 넘어서 로마제국의 질서와 통치를 위협하는 하나의 적이 되었던 셈이다.[65]

다음에 소개되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켈수스의 비판은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한다. "동일한 사람이 여러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언급인데, 켈수스는 예수의 이 같은 가르침은 "반역적인 발언"(στάσεως φωνὴν)으로써 사람을 사회와 인류로부터 격리시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8.2). 로마 황제와 통치자의 노를 부추겨 기독교에 고문과 죽음을 가하도록 만든 장본인도 결국 기독교인 자신들이라는 것이 켈수스의 결론이며(8.65), 이는 로마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되기도 했다.

예수의 가르침을 다루면서, 켈수스는 모세와 플라톤의 가르침과 각각 비교하면서 평가하기도 했다. 먼저, 모세의 경우를 보자. 켈수스는 예수를 "나사렛 사람"(ὁ Ναζωραῖος ἄνθρωπος)이라 칭하면서 그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과 모순되며, 이는 결국 모세와 예수를 보냈던 유대인의 하나님의 모순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7.18). 그 예로, 이 유대인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부해지며 강해지며 땅을 채우며 적들을 멸할 것이라 했지만, 반대로 그의 아들(즉, 예수)을 통해서는 부와 권력을 사랑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제시했는데, 둘 사이 상반된 진술을 문제시한 것이다.[66]

---

64 Tacitus, *Annals,* 12.59.

65 D.B. Martin, *Inventing Superstition: From the Hippocratics to the Christians* (Cambridge, MA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132.

66 모세에 대한 켈수스의 평가는 부정적, 긍정적인 면 모두 포함하고 있다. 켈수스는 태초부터

플라톤과 예수의 가르침의 경우에 대한 켈수스의 평가를 보자. 그는 이들이 가르친 공통된 내용으로, 겸손(6.15), 악에 대한 무저항(7.58), 부와 사치는 선한 삶에 장애물이 된다는 점(6.16), 신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구분한 점(6.12) 등을 열거한다. 하지만, 이들 교훈의 출처에 대해서 켈수스는, 플라톤이 모세의 글을 참고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플라톤의 글을, 바울이 헤라클리누스(Heraclitus, BC ca.535-ca.475)의 글을 각각 읽고 공부한 것이라 주장했다(6.16; 6.12). 한 예로, 모욕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며 한쪽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 대야 한다는 예수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이는 이미 플라톤의 작품에서 천명된 교훈이라 주장한다(7.58).[67] 크리톤(Crito)과의 대화에서 소크라테스의 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기에,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에게 되갚아서는 안 된다"(Οὐδαμῶς ἄρα δεῖ ἀδικεῖν. Οὐ δῆτα. Οὐδ' ἀδικούμενον ἄρα ἀνταδικεῖν)는 부분을 언급하면서(7.58),[68] 이런 가르침들은 신에 의해 영감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제시되었다고 주장한다(7.58). 또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예수의 교훈을 언급하며,[69] 역시 플라톤의 것에서 가져온 것이라 주장한다(6.16). 하지만 이번 경우는, "탁월한 선인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ἀγαθὸν ὄντα διαφόρως καὶ πλούσιον εἶναι διαφερόντως εἶναι ἀδύνατον)는 플라톤의 주장을 인용이 아닌, 왜곡시킨 것이라 비판했다(6.16). 결국 예수의 가르침은 고대 다신론적 전통에서 간직되어져 온 최초의 진리들을 재인용했거나 전와(corruption)시켰다 것이(1.14), 켈수스의 요점이라 하겠다.

존재해 왔던 고대 로고스(ἀρχαῖος λόγος)를 소유한 인물로, 그리스 신화의 리누스(Linus)와 오르페우스(Orpheus), 헬라 시인 무사에우스(Musaeus), 페레키데스(Pherecydes), 조로아스트교의 창시자 자라투스트라(Zoroaster the Persian), 피타고라스(Pythagoras)를 언급했다(1.16). 모세의 경우, 그는 단지 이 로고스(τοῦ λόγου)를 듣고 신적 힘(δαιμόνιον)을 가져 명성을 얻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켈수스는 말한다(1.21). 결국 켈수스의 명단에 모세는 빠진 셈인데, 이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책을 증거로 기독교의 고대성을 주장했던 유스티누스의 변증의 방법과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67 마 5:39; 눅 6:29.

68 Plato, *Crito* 49B-E.

69 마 19:24; 막 10:25; 눅 18:25.

III. 결론

이상 우리는 켈수스의 기독교 이해와 비판을 다루되, 특히 예수를 중심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비록 예수를 천사 혹은 다이몬으로 말하기도 하나, 십자가에서 죽어 시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예수는 다이몬도 유령도 아닌, 이보다 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예수는 단순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비판의 핵심이었는데, 신이 변화를 통해 죽을 육신을 입고 물질세계로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의 철학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성육신 교리는 맹목적인 믿음을 추구한 예수의 제자들이 만들어냈고 기독교인들의 지나친 숭배로 말미암아 예수가 신격화되었다는 것이, 그의 비판의 논지였다. 또한, 동정녀 탄생을 다루는 그의 태도에서도 예수의 신성은 부정되었는데, 예수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 외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간음한 여인으로 치부해 그 출생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를 야기 시켜 기독교를 비판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예수의 십자가 고난 사건 역시, 신들은 고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그의 철학적 신념에 근거해 지어낸 이야기라 주장했다. 잔을 피하게 해 달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나 죽기까지 고민한 태도를 언급하면서 예수의 불일치한 언행을 문제 삼기도 했다. 아울러, 고초 속에서 더 고결한 태도를 보였던 더 나은 인물로 그리스의 영웅들을 열거하거나 요나와 다니엘 같은 성경의 인물들을 제시한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예수의 부활 사건에서는 최초의 목격자를 정신착란을 앓았던 여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꾸민 이야기라 단정했고, 더 나아가 몸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 교리 또한 터무니없는 것이라 비판했다.

예수가 행한 이적들에 대한 비판에서 켈수스가 문제시한 것은, 이적들의 행위 자체보다는 예수가 어떤 능력에 근거해 행해졌는가에 있었다. 즉, 그의 사고에서 볼 때, 예수는 속임수와 부정한 방법으로 이적들을 행한 사악한 주술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켈수스의 비판에서, 예수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고대 철학자와 선인들의 가르침을 재인용했거나 와전시킨 것에

불과했다. 여러 주인을 섬기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켈수스는, 로마제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했고 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고문과 박해의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주장했다.

켈수스의 비판의 내용들은 이전 일반 대중들 사이에 퍼진 소문의 내용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이는 그가 성경을 직접 읽고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물론 그 동기가 기독교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를 적대하며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스스로의 조사와 더불어, 헬라-로마 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종교적-철학적 이해와 신념에 근거한 그의 비판을 볼 때, "보수주의 지식인"(conservative intellectual)이라 평가한 윌켄의 지적은 합당해 보인다.[70] 결국 그의 기독교 비판은 "체계적인 공격"(systematic attack)일 수밖에 없었고,[71] 오리게네스는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 그의 비판의 내용을 방대하게 인용하며 조목조목 반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70 Robert L. Wilken, *The Christians As the Roman Saw Them*, 95.
71 Stephen Benko, *Pagan Rome and the Early Christians*, 147.

[참고문헌]

1차 자료

Bader, Robert. *Der Alēthēs logos des Kelsos*. Stuttgart: Berlin, W. Kohlhammer, 1940.

Borret, Marcel. ed. *Origène. Contre Celse*, 5 vols. Sources Chrétiennes, 132, 136, 147, 150, 227. Paris: Éditions du Cerf, 1967-76.

Chadwick, Henry. *Origen: Contra Celsu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3.

Hoffmann, R.J. *Celsus: On the True Doctrine: A Discourse against the Christia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Marcovich, Miroslav. ed. *Contra Celsum Libri VIII*. Leiden: Brill, 2001.

Robinson, James M. ed. *The Nag Hammadi Library in English*. Leiden: E.J. Brill;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77.

2차 자료

Andresen, Carl. *Logos und Nomos: Die Polemik des Kelsos wider das Christentum*. Berlin: Walter de Gruyter, 1955.

Benko, Stephen. "Pagan Criticism of Christianity During the First Two Centuries A.D." *ANRW* 2.23.2 (1980), 1054-118.

_____. *Pagan Rome and the Early Christian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Bergjan, Silke-Petra. "Celsus the Epicurean? The Interpretation of an Argument in Origen, Contra Celsum," *HTR* 94.2 (2001), 179-204.

Bromiley, Geoffrey William trans. and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 vol. 2.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1964.

Burke, Gary T. "Celsus and the Old Testament," *Vetus Testamentum* 36.2 (1986) 241-45.

Cook, John Granger. *The Interpretation of the New Testament in Greco-Roman Paganism*. Tübingen: Mohr Siebeck, 2000.

_____. *The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Greco-Roman Paganism*. Tübingen: Mohr Siebeck, 2004.

Dickie, Matthew. *Magic and Magicians in the Greco-Roman World*. London: Routledge, 2001.

Drobner, Hubertus R. *Fathers of the Church: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Translated by Siegfried Schatzmann. Peabody, MA: Hendrickson, 2007.

Evans, Craig A. *Life of Jesus Research: An Annotated Bibliography*. Leiden: Brill, 1989.

Frede, Michael. "Celsus's Attack on the Christians," Edited by Jonathan Barnes and Miriam T. Griffin, *Philosophia Togata II: Plato and Aristotle at Rome*. Oxford: Clarendon, 1997, 232-40.

Greenbaum, Dorian Gieseler. *The Daimon in Hellenistic Astrology: Origins and Influence*. Leiden and Boston: Brill, 2016.

Hargis, Jeffrey W. *Against the Christians: The Rise of Early Anti-Christian Polemic*. New York: Peter Lang, 1999.

Herford, R. Travers. *Christianity in Talmud and Midrash*. London: Williams & Norgate, 1903.

Kannaday, Wayne C. *Apologetic Discourse and the Scribal Tradition: Evidence of the Influence of Apologetic Interests on the Text of the Canonical Gospels*.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4.

Kelhoffer, James A. *Miracle and Mission: The Authentication of Missionaries and Their Message in the Longer Ending of Mark*. Tübingen: Mohr Siebeck, 2000.

Klausner, Joseph. *Jesus of Nazareth: His Life, Times, and Teaching*. New York: Macmillan, 1925; reprinted New York: Block, 1997.

Lane Fox, Robin. *Pagans and Christians*.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1986.

Lods, Marc. "Étude sur les sources juives de la polémique de Celsus contre les Chrétiens," *Revue d'histoire et de philosophie religieuse* 21 (1941), 1-33.

MacDonald, Margaret Y. *Early Christian Women and Pagan Opinion: The Power of the Hysterical Wom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Martin, D.B. *Inventing Superstition: From the Hippocratics to the Christians*. Cambridge, MA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Meyer, Eduard. *Ursprung und Anfänge des Christentums in drei Bänden III: Die Apostelgeschichte und die Anfänge des Christentums*. Stuttgart: J.G. Cotta'sche Buchhandlung Nachfolger, 1923.

Olson, Daniel Carl. *A New Reading of the Animal Apocalypse of 1 Enoch: "All Nations Shall be Blessed"*. Leiden: Brill, 2013.

Pichler, Karl. *Streit um das Christentum: Der Angriff des Kelsos und die Antwort des Origenes*. Frankfurt am Main: Lang, 1980.

Sandnes, Karl Olav. *Early Christian Discourses on Jesus' Prayer at Gethsemane: Courageous? Committed? Cowardly?*. Leiden: Brill, 2016.

Schäfer, Peter. *Jesus in the Talmud*.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Simmons, Michael Bland. "Graeco-Roman Philosophical Opposition," Edited by Philip F. Esler, *The Early Christian World*. London: Routledge, 2000: 840-68.

Smith, Morton. *Clement of Alexandria and a Secret Gospel of Mark*.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Tripolitis, Antonia. *Religions of the Hellenistic-Roman Age*. Grand Rapids, MI: Eerdmans, 2002.

Wilken, Robert L. *Christians as the Romans Saw Them*.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84.
Wilson, Stephen. *Related Strangers: Jews and Christians 70-170 C.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Abstract]

The Attitude of Early Graeco-Roman Intellectuals Toward Christianity: From Celsus' Criticism of Jesus

Min Seok Shin
(Sydney College of Divinity, Adjunct Professor, Church History)

This article deals with Celsus' criticism of Christianity, particularly its central figure, Jesus. Unlike earlier critics, Celsus' criticism is based not on rumors among the populace, but on his own reading of the Bible, his philosophical understanding, and his traditional Graeco-Roman religious view, About seventy years later, Origen in his work, Contra Celsum, rebutted Celsus, and quoted contention at length in Ἀληθὴς Λόγος which had been composed by him against the Christians. This shows that his criticism was so threatening to early Christianity.

Celsus' criticism of Jesus can be explained in the three main categories in content. First, about the divinity of Jesus. Celsus viewed the virgin birth of Jesus as a fabulous tale invented by himself, and the doctrine of incarnation as a made-up story by his deluded and credulous followers. Based on his philosophical view that god cannot become mortal being by change and transformation, Celsus saw Jesus merely as a human. Second, regarding the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of Jesus, Celsus criticized the former as a fable for his philosophical understanding that god cannot suffer. Celsus also disparaged Jesus' prayer to be delivered from the cup as his congruous behavior. For Celsus, the first witness to the resurrection was treated as a hysterical female, and his resurrection was also

a fable. Last, Celsus criticized Jesus' teaching as nothing more than re-quotation or distortion from the ancient sages, and his miracles as the work of sorcery, respectively. This paper provides an insight into how early Graeco-Roman intellectuals understood the figure of Jesus, and how early Christian apologists defended Christianity.

Key Words: Celsus, Jesus, Magician, Crucifixion, Resurrection, Incarnation